

중국 유리섬유 시장 급성장

2003년 생산량 45만톤 ... 풍력발전 · 어선용 수요 기대

중국의 유리섬유(Glass Fibe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유리섬유 생산량이 45만톤, UPR(Unsaturate Polyester Resin)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60만톤, 강화 열가소성소재 22만톤, Copper로 도포한 유리섬유가 12만4000톤에 달했다.

2003년 유리섬유 수요비중은 Textile Yarn이 13만톤으로 29%, Reinforcing Substrate가 32만톤으로 71%를 차지했다. Reinforcing Substrate 생산량 32만톤 중에는 Chopped Felt 6만5000톤을 비롯해 열가소성 플라스틱 4만5000톤, Chessboard 옷감 5만톤이 포함돼 있다.

Textile Yarn은 특수직물 투입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전자용 직물이 4만톤, 어망용이 5만톤, 낚시용을 비롯해 여과포, 공기유통(Duct)용, 절연재 생산량이 5000톤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나 전기절연용으로 유리섬유가 많이 사용됐고 최근 들어서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건축, 공장 인프라 및 환경보호용이 새로운 수요제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유리섬유 수요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용이 25만-30만톤, 전기전자용이 8만-10만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용이 10만-12만톤, 방수소재가 6만-8만톤, 토목용이 3만-5만톤, 석면 대체용이 3만-5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2005년 중국의 구리피복재 생산량은 5000만평방미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정밀 유리섬유 사용량이 매년 7만톤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발전도 대규모 수요처로 2005년 풍력발전량이 1000MW에 달하고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수요가 1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유리섬유 체스보드 벽지 생산량도 4억평방미터에 중국시장 판매는 소량에 그치고 대부분을 유럽 및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에는 어선이 96만척에 달하고 있으나 98%가 목재보트이고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어선은 460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나, 점차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고 있어 2010년에는 수요가 8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국에는 유리섬유 생산기업이 100개를 넘고 있으나 연간 생산량이 1만톤을 상회하는 곳은 단지 12곳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대 생산기업은 Shandong Taishan, Zhejiang Jushi, Chongqing International이며 생산량이 17만톤 수준으로 전체의 50%를 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9/02>